

3년간 신규 엔젤에 1조 투자… ‘제2벤처 봄’ 속도 낸다

중기부,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시행
유망 창업기업에 투자액 2배 보증
규모 5364억… GDP 대비 0.03%

정부가 2022년까지 엔젤 신규 투자 규모를 1조원까지 늘려 ‘제2벤처 봄’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엔젤 등 민간이 투자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기보)이 투자액의 2배까지 보증하고 단계별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오후 서울 역삼동 텁스타운에서 기보, 엔젤투자협회, 액셀러레이터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보 엔젤파트너스’ 발대식도 가졌다.

A+프로그램은 전문 엔젤이나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투자한 유망 창업 초기기업을 추천하면 기보가 투자액의 2배까지 보증하고, 보육·투자 등 단계별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하는

|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안 | | |
|---|--|--|
| 대상기업 선발(민간) | 1단계 지원(기보) | 2단계 지원(기보) |
| 기보 엔젤파트너스에서 대상기업 추천 *전문엔젤 및 액셀러레이터로 구성 | ① 기보 파트너스 보증(신설) 2019년 200억원 규모 ② 기보 벤처캠프(연계) 2018년 96개 기업 지원 | ① 포스트 엔젤플러스 보증(신설) 기업당 최대 30억원 ② 보증계투자(연계) 보증액 2배 이내, 최대 30억원 ③ 엔젤 구주투자(신설) 2019년 투자목표 25억원 |
| | | *분기별 IR행사 개최 추진 |
| 일반보증과 엔젤플러스 차이점 | | |
| 구분 | 일반적인 보증 | 기보 파트너스 보증 |
| 대상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엔젤투자유치 후 추천받은 창업기업 |
| 보증금액 산정특례 | 1억원(既 보증금액 차감) | 2~3억원(既 보증금액과 무관) |
| 보증비율 | 기본 85% | 100%(전액 보증) |
| 보증료 | 0.2%p 감면(벤처기업 기준) | 0.3%p 감면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것이 골자다.

엔젤투자란 개인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창업 기업에 투자해 생존에 필요한 미중물 역할을 하는 ‘착한 자금’을 의미한다. 스타트업(창업기업) 입장에선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벤처투자를 받기 전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외부자금이 엔젤투자다.

하지만 2000년 당시 5493억원이었던

엔젤투자 규모는 지난해 5364억원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든 상태다. 미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엔젤투자 규모가 0.11%이지만 우리나라에는 0.03%로 미미하다.

이번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우선 기보와 엔젤투자 전문가 그룹이 협력해 파트너스를 만든다. 파트너스 구성은 4개 이상 기업에 2억원 이상 투자한 전문

엔젤이나 보육공간 입주기업에 투자한 액셀러레이터가 기준이다. 이들 파트너스에는 5000만원 이상 투자 및 보육한 기업 중 매년 2개 기업까지 추천권이 주어진다.

1단계로는 파트너스가 기업을 추천하면 먼저 기보 파트너스 보증을 통해 3억원 한도내에서 엔젤투자액의 2배까지 지원한다. 또 보증비율 100% 및 보증료 0.3% 감면 혜택 등도 준다. 이 때 엔젤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배수와 무관하게 2억원까지 보증해준다.

1단계 지원이 끝난 후 매출이나 고용 등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별도로 선발해 포스트엔젤플러스 후속투자를 제공한다. 2단계 지원이다. 포스트엔젤플러스는 기업당 최대 30억원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보와 거래중인 기업에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엔젤투자자의 지분, 즉 구주를 기보가 인수하는 ‘엔젤 구주투자 제도’도 시행해 엔젤투자

자의 조기 회수 및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재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선 ‘기보 엔젤파트너스’ 구성을 돋기위해 기보와 엔젤투자협회, 액셀러레이터협회간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오는 11일에는 유니콘 육성을 위해 기획했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기업들과 현재 유니콘기업,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예비)유니콘 특례보증 수여 및 간담회’도 별도로 열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은 기보와 전문엔젤·액셀러레이터들 간 연결의 힘을 통해 엔젤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기부는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2022년까지 엔젤 신규투자 규모가 1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라시멘트 강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건강검진 일반질병 유소견자 대상

한라시멘트는 강원 옥계공장에서 건강검진 일반질병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는 옥계공장 근로자 가운데 지난해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일반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유소견자 100여 명이다. 월 1회 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첫 진료와 교육이 지난 6월 말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사내에서 운영 중인 건강관리실과 지역 전문기관을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소견자 전원을 대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에서 진행한 건강검진 일반질병 유소견자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직원들이 검진을 받고 있다.

상자로 선정하고 사전조사를 통한 진료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예년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던 방식보다 체계화된 동시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건강행태 분석, 체성분 측정, 영양 및 스트레스, 대사증후군, 비만, 절주 교육, 금연 등이다.

/김승호 기자

에몬스가구 ‘변화하는 집’ 전략 시장 공략

가구 트렌드·신제품 품평회 개최
‘크림라떼’ 침실시리즈 등 선보여

에몬스가구가 점점 변화하고 있는 집의 역할에 주목하고 다양한 공간 연출을 위한 제품으로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집의 의미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휴식과 충전을 위한 공간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1인 기업, 재택근무, 흠키페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에몬스가구는 올해 기업의 브랜드 메시지를 ‘생활을 바꾸는 만남’으로 잡았다.

올해 계획했던 2200억원 매출 목표는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빨간불’이 켜졌지만 강점을 갖고 있는 가정용 가구와 특판 부문 등을 통해 최대한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며 어느새 77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한 공유오피스에 버금가는 홈오피스 시리즈도 새로 선보였다.

에몬스가구는 3일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본사에서 2019년 가을시즌 가구 트렌드 및 신제품 품평회를 가졌다.



에몬스가구 김경수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3일 인천 남동공단 본사 전시실에서 대리점주들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몬스

김경수 에몬스가구 회장은 “집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세분화된 트렌드가 존재하고 있다보니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주거공간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침대에서 피로를 풀고, 기능성과 디자인을 결합한 자연친화적 신소재의 소파와 식탁에서 원하는 취미를 즐기는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에몬스가구는 ▲평형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공간맞춤이 가능한 ‘크림라떼’ 침실시리즈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모바일 앱으로 조명 등의 작동이 가능한 ‘루아르’ 침대 ▲다양한 옵션의 불박이장 ▲드레

스룸 공간에 빌트인 시킬 수 있는 전용 상부장 등을 새로 선보였다.

에몬스가 앞서 모션 매커니즘과 매트리스를 결합해 출시한 이모션 매트리스는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제품혁신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관심이쏠리고 있는 친환경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 신소재도 가구에 대거 적용했다.

점토, 석영 등 100% 천연재료를 고밀도, 고압력으로 제작한 ‘포세린 세라믹’이 대표적으로 이는 스크래치나 충격에 강하며, 뜨거운 물건을 올려놓아도 자국이 남지 않는 강력한 표면 강도를 가진 것이다.

/김승호 기자

웅진코웨이 ‘벽걸이 겸용 공기청정기’ 출시



필터 대비 공기 접촉 면적을 약 25% 넓혀주는 핵심 역할을 한다.

신제품은 5단계 필터 시스템을 구현했다. ▲극세사망 프리필터 ▲맞춤형 필터 ▲탈취필터 ▲초미세 더블 집진필터(초미세먼지 집진필터+초미세먼지 집진필터)로 구성된 5단계 필터 시스템이 초미세먼지부터 냄새까지 깊이 깊이 걸러준다. 월 렌탈료는 3만5400원(등록비 10만원 기준)이며, 일시불 판매 가격은 89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내달 28일 벤처 기업인들 ‘한자리에’

벤처기업협회 ‘벤처썸머포럼’
성공경험·혁신아이디어 등 공유

그동안 제주에서 열렸던 벤처썸머포럼은 광주·전남 등 남부지역 벤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여수에서 열린다.

올해는 ‘더하라! 세상을 바꾸는 벤처의 목소리, 펼쳐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벤처의 날개’라는 슬로건으로 선후배 벤처기업인들이 성공경험과 혁신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김승호 기자



지난해 제주에서 열렸던 벤처썸머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